



## 박소현의 섹.시.토.크

결혼 7년차인 S. 그녀의 결혼생활은 그럭저럭 행복한 편이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S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은 7년 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아서 시시콜콜 간섭을 하고 야단을 치며 며느리를 잡으려 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정작 남편은 세세한 사정을 몰랐다. 그 역시 우리 부모만한 시댁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한국의 보통 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토로해도 결론은 늘 너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자세한 사정을 밝히기보다는 투덜거리는 것으로 일관해 온 S도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남편과 시댁문제로 인성을 높인 날이면 S의 눈에 남편은 내 남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날, 남편과 잠자리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힘든 일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오히려 좀 전에 다른 것을 풀어볼 요강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일쑤였다. 화가 안 풀렸다는 핑계로 밀어내자니 짜증이 길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섹스를 하자니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속상할 일이 생겼다. 자주 전화를 안 한다고 불만이 많던 시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해서는 한바탕 사단을 낸 것이다. S는 그날 초저녁부터 눈물바람을 해야 했다.

문제는 그날 밤 퇴근한 남편,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그저 엄마에게 잔소리를 좀 들었거나 생각한 그는 또 S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열심히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S의 눈에 비친 남편은 정말 미운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섹스를 하고 싶을 리가 없었다. S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강하게 남



편을 밀쳐냈다.

“하기 싫다는는데 왜 아래? 끌도 보기 싫으니까 자리 가.”

말해놓고 나서 좀 심했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미 남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남편이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화난 상태라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려 저럭 화가 풀리고 사이가 좋아진 뒤에도 잠자리

의 설립함은 가시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도록 관계가 없자 S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자존심을 꺾고 먼저 접근을 해 보았다. 뒤에서 슬쩍 악기도 하고 제법 진한 스킨십까지 시도했지만 남편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피곤하다고 돌아눕거나 갑자기 TV를 본다며 일어나 거실로 나가버렸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 고부 갈등이 유발한

## 남편의 잠자리 피하기

## 스킨십·잠자리 바꾸기…

## 갖은 유혹에도 꿈꿔 안해

그렇다고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평소엔 아이들과 장난도 잘 치고 S에게도 다정하게 대했다. S의 생일이 돌아오자 평소 갖고 싶다 했던 가방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사 주었다. 그런데 고통하다, 즐리다, 혹은 먼저 자는 척 하는 것으로 교묘히 잠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이대로 사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S는 정면승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야기 좀 해.”

애들을 일찍 재운 날 밤, 술상을 받아놓고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지 뭐.”하고 응수했다.

“자기 나한테 화 많이 났어?”, “아니.”

“그럼 왜 그래?”, “뭘?”

“왜 잠자리를 거부해?”, “거부한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래. 당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그래?”

대학가 되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은 아직 꿩꽁 얼어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가 이렇게 뒤끝 있는 남자인지 몰랐던 사실이 후회되었다. S는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날 밤, S는 아이들 방에 걸려있던 가족사진을 침실로 옮겨왔다. 가족사진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댁식구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침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그 사진을 걸고 잠자리에 누웠다. 시어머니가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래.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일 뿐이야.’

모든 욕구가 단번에 가셔졌다.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 남편과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무래도 S부부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 검색정정 키워드

## 검색

이번 주 인터넷 세상은 축구 선수들이 훌륭했다.

스타트는 부상소식이 전해진 ‘축구 천재’ 박주영이 끊었다.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중국전에서 멋진 프리킥 골을 성공시키며 최상의 골감각을 선보였던 만큼 네이티즌의 관심이 뜨거웠다. 박주영은 왼쪽 허벅지 근육 통증으로 북한과의 대결에 결장했고, 일본전 출전도 불투명해 축구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북한 최고의 스트라이커 정대세에게도 관심이 쏟아

## 기쁨과 슬픔 함께 준 축구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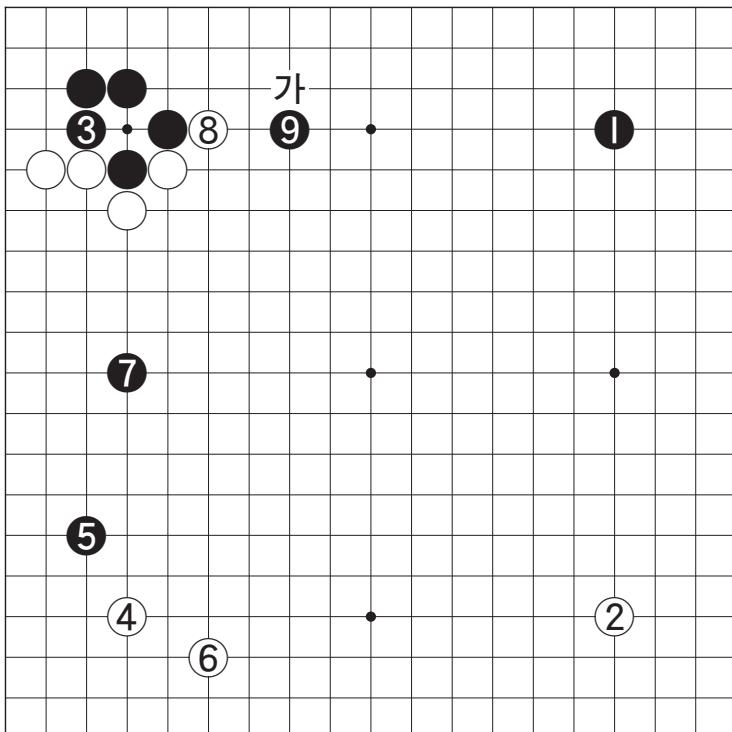


졌다. 뛰어난 몸싸움과 천재적인 골감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대세는 번개와 같은 역습으로 동점골을 터트리며 축구팬들에게 자신의 명성을 확인 시켜주었다.

한편 남북대결이 1-1 무승부로 끝나자 네이티즌은 “정대세 대단하다. 우리나라에는 전술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선수들 슈팅 연습 좀 해라”, “단순한 공격만 엄청 하다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한국 축구 지겹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주 ‘낙태 스캔들’로 축구대표팀에서 중도하차한 황재원도 다시 한번 네이티즌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황재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네이티즌은 이에 대해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비판은 자제합시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



## 광주 기우회

## 대항전

## 광주유단자회와 전남대 오로회 1보(1~9)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종길 5단 (광유회)

이번에는 기우회 대항전의 두번째 판으로 광유회의 김종길 5단 오로회 대결이다.

광유회는 이지역 대표로 전국대회에도 자주 출전할 정도로 강자들의 모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남대 학교의 오로회도 이에 못지 않게 대학 바둑의 강자들을 많이 배출시킨 전통 있는 바둑명문으로 광유회에 필적할 만한 고수들이 즐비하여 좋은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드 김종길 5단 현재 신가동에서 미래바둑학원을 열고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바둑TV에서 주최한 전국 마인드 철인3종경기(바둑, 오로, 장기)에 출전하여 4강

진출하는 흐름을 이루어 김 5단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다양한 재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을 든 기용성 5단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부발전의 과장으로 직장바둑 계의 강자로 알려져 있다. 광주일보 사가 주최하고 있는 광일배 직장대회에서 두번의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한국전력의 주축멤버다.

특히 광양시바둑협회장배 우승과 광양시장배 준우승 등 광양만권에서는 최강의 위치를 굳하고 있다. ‘가’로 두지 않은 흑 9가 고압적인 협공으로 일찍부터 파린을 예고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 소식

## 바둑도 심판복 입는다

프로바둑 심판(입회인)들도 심판복을 입는다. 한국기원은 21일 “프로대회 예선 때 심판들에게 심판복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5일에 열릴 제2기 지지육선 예선 1회전의 심판을 맡은 김일환 9단이 바둑계 첫 심판복 착용자가 된다.

그동안 대국 때 분쟁이 벌어지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 심판이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았다.

사무국에서도 심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심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판의 권위 형상을 위해 정식 복장을 입게 된 것이다.

/오광철기자 kroh@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1월 16일 壬辰)



36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48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60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하다. 72년생 실률 사기 도난의 손해수가 있으니 조심. 84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하니 괴시는 금한다. 행운의 숫자: 21, 43



37년생 침체 속에實利도 있다. 49년생 대 밭전을 약속하고 가족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는다. 61년생 큰 득은 좋은 미루리에 있다. 73년생 확신이 있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85년생 출분이 되도록 과하게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08, 39



38년생 문서 작업으로 인해서 대고여이 증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50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괴롭게 진행하다. 62년생 태어난 의사와 손재주가 우여 둔다. 74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39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의 안정 된다. 51년생 신사 투자에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속고하라. 63년생 친구 친척간에 혼사나사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75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05, 34



40년생 음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나 스스로 폐한다. 52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4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6년생 과욕만큼 잊을 수 있는 손해가 있다. 행운의 숫자: 07, 42



41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3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65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짐작하고 하라. 77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고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41



42년생 빈 문서로 눈물을 걱정된다. 54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을 저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6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화되리라. 78년생 예기치 못한 악습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14, 29



43년생 증상하는 형상이고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히다. 55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족화된다. 67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9년생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17, 40



44년생 솔이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56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다. 68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80년생 내 것 잊고 송사 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8, 34



45년생 스스로自懶하는 경이요. 57년생 기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히다. 59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발생한다. 61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3년생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12, 30



46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58년생 가정과 배우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70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82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행운의 숫자: 03, 32



47년생 비정한 과로음이 축구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0년생 부부사이가 이길릴 때 미운사람이 나온다. 71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8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09, 38

[www.cafe.daum.net/sajoo114](http://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102&gt;

Isn't time for her to get a job?

직장을 잡아야 할 때 아닌가요?

A: What is Mary doing now?

B: She's just taking it easy.

A: Isn't time for her to get a job?

B: Yah, she's going to start looking next week.

A: 메리는 지금 뭘 해요?

B: 그냥 쉬고 있는데요.

A: 직장을 잡아야 할 때 아닌가요?

B: 예, 다음주 중에 찾으려고 합니다.

\* take it easy : 쉬다

\* 존이 전화를 해야 하지 않나요?

= Isn't it time for John to call?

\* 메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